

곽향정기산에 얽힌 허준 설화

박수진, 안상우, 이선아

한국한의학연구원

Heo jun' s traditional tales connected with Gwakhyangjeonggisan

Park Su-jin, Ahn Sangwoo, Lee Suna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ere are various treatment methods in traditional tales concerning Heo jun. Among these tales We will introduce cases connected with Gwakhyangjeonggisan. In this treatise We will not lay great emphasis on significance in oriental medicine but on significance of traditional tale. This study will provide some research material on traditional medicine.

key words : Heo Jun, Gwakhyangjeonggisan

I. 서론

어린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불량음식을 먹고서, 혹은 갑자기 잔뜩 먹고서 배가 아파 뒹굴어 본 적이 있다. 그때마다 할머니들은, 사람의 오장을 관장하는 乞神이 성을 내어 관격이 일어났다고 보고, 불룩 내밀어진 배에 치성을 드리듯이 살살 어루만진다. 그리하면서 黃帝에게 허준같은 醫神들을 불러다 호통을 치게 해달라고 주문을 한다. 이와같이 몇 번을 문지르고 빌면 乞神들은 물러나고 신통하게 아픈 것이 멈추어 버린 기억이 있다.

이와같은 경험은 어처구니없는 치료법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뿐만 아니라 자유자재로 마술을 보여주는 허준같은 명의들의 고차원적인 의술과 정

성도 알게 되었다.

또 이야기속에서 다리가 아플 때에나, 학질에 걸렸을 때, 전염병에 걸렸을 때에도 醫神인 허준은 언제나 위풍당당하게 나타나 씻은 듯이 치료해준다. 때로는 곽향정기산이라는 靈藥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약을 먹고 나면 약발을 받았는지 쭈시던 다리도 멀쩡하게 되고 학질도 천리 밖으로 달아나 버린다.

그러나 허준(1539~1615)은 설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조선 선조조에서 광해군시대에 명의로 활약하였던 역사상 실존 인물이다. 다만 그의 의술이 이처럼 설화적 이야기로 전승되어 내려오는 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뛰어났기 때문이다. 초능력으로 온갖 조화를 부려 치료하는 것으로 묘사되어지는 것도 상상 속에서만이나 명의를 불러다 치료받고 싶은 민중들의 간절한 마음에서 일 것이다.

허준에 관한 설화 중에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곽향정기산과 관련된 설화만을 사례별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내용은 한의학적 영역에서 곽향정기산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앞에서도 말하였듯이 설화적 의미에서 곽향정

□ 접수 ▶ 2007년 2월 23일 수정 ▶ 2007년 4월 4일 채택 ▶ 2007년 4월 16일

□ 교신저자 ▶ 이선아,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1-24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042-868-9443 Fax 042-863-9463 E-mail gnature@kiom.re.kr

기산에 대한 자료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따라서 본 글이 한의학적 설화의 전체가 아니지만 한의민속학적 자료로서 또는 민중속의 한의학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사례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곽향정기산에 대하여

설화에서 곽향정기산은 만병통치약으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곽향정기산에 대하여는 원 출전인 『화제국방』 「傷寒門」¹⁾을 비롯하여 『동의보감』, 『초창결』 등에 처방의 효능과 용법을 수록하고 있다. 이 곽향정기산 처방에 대한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화제국방』 「傷寒門」에 나오는 곽향정기산을 보면 다음과 같다.

傷寒에 두통, 오한, 발열하고 기침을 하며 숨이 차고 피로하고 전신이 괴롭다. 또 소화불량하여 체한 것이 그대로 있으면서 배가 차고 아프며 위장이 움직이지 않고 구역, 오심이 있고 곽관으로 설사를 하며 헛배가 부르고 배에서 소리가 난다. 열대성 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신이 붓는다. 산전산후에 어혈로 몸이 쭈시듯이 아프다. 소아는 비위가 손상되어 영양 흡수가 장애를 받아서 몸은 야위며 헛배가 부르고 만성소화불량이 있다. 이 모든 병을 고친다.

들어가는 약제로는 藿香 4.5g, 蘇葉 3g, 大腹皮, 白芷, 白茯苓, 半夏, 白朮, 陳皮, 厚朴, 桔梗, 炙甘草 각 1.5g씩 이고 여기에 약제를 고운가루로 하고 물에 생강, 대추를 가하여 달이고 뜨거울 때 복용하면 된다. 적응점은 풍한에 상하였을때, 소화불량, 열대성 전염병에 걸렸을때, 산전후에 어혈로 아플 때 등의 치료법으로 사용한다.

다음은 『東醫寶鑑』 「雜病篇」에서 곽향정기산을 논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한음증으로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픈 것을 치료한다. 만일 表證인가 裏證인가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이 약 기운을 경락으로 이끌어 다른 변동이 없게 해야 한다. 들어가는 약제로는 곽향 6g, 자소엽 4g, 백지·대복피·백복령·후박·백출·진피·반하(법제한 것)·길경·감초(볶은 것) 각각 2g씩 이고, 위의 약들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 대추

2알을 넣고 물에 달여 먹는다.²⁾

끝으로 『초창결』의 내용은 『동의보감』의 처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즉, “상한음증으로 表裏를 구분하기 어려운 증상에 사용한다(傷寒陰症 不分表裏 用此導引經絡 藿香一錢半 蘇葉一錢 白芷大卜皮白茯苓厚朴白朮陳皮吉更半夏炙甘五分 干三棗二 頭痛身痛等症)”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같이 실제 치료요법으로서의 곽향정기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부분 『동의보감』이나 『초창결』에서는 상한음증에, 그리고 『화제국방』에는 傷寒으로 인한 두통, 오한, 발열, 기침, 소화불량, 체증, 오심, 곽관, 설사, 복통, 그리고 열대성 전염병, 산전산후에 어혈로 몸이 쭈시듯이 아픈데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거의 대부분 상한증에 사용되는 처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설화속에서도 곽향정기산은 만병통치약처럼 보이거나 실지로는 토사, 설사, 곽관, 복통, 어지러움, 허로 등에 이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III. 허준설화와 곽향정기산

의약설화, 그중에서도 ‘곽향정기산’ 과 관련 설화들을 모아보았다. 이 곽향정기산 관련 설화의 대부분은 허준이라는 조선중기의 명의를 주인공으로 등장하였고, 일부는 허준 대신에 약방노인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곽향정기산에 관한 설화를 보면 곽향정기산이라는 처방 자체에 대한 의학적 관심이나 효능보다도 조선시대 유명한 허준에 관한 관심이 더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생활에서 의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명의에게 치료를 받고 싶은 소망이 더 간절함을 이 설화를 정리하면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허준은 어떤 의원보다도 가장 존경의 대상으로, 곽향정기산은 만병통치약처럼 전해지는 내용들을 모아보았다.

<사례 1> 허준은 선조 때의 어의였다. 젊은 시절에 가난하여 동현에 약 파는 가게를 내고 있었다. 어느 날, 향원이처럼 생긴 늙은 학구가 다 떨어진 갈옷에 짚신 차림으로 갑자기 들어왔다. 방 한쪽 모퉁이에 앉아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이 되어도 가지 않는 것이었다. 허준이 괴이하게 여겨 물으니, 그가 말하길 어떤사람과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밥 먹을때가 되어 허준이 밥을 차려올까 물으니, 그는 아니라고 하며 문밖으로 달려나가 주머니에 있던

1) 주지하다시피 『화제국방』은 ‘太平惠民和劑局方’이라고도 불리우는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으로, 1078년에 처음으로 발간되었으며 태의국에 소속된 약국의 처방을 모아서 간행한 국가편찬 醫書이다.

2) 허준, 『對譯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1999:1018.

돈으로 저잣거리에서 밥을 사서 먹고 되돌아와 웅크리고 앉는 것이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났으나 그가 기다리는 사람은 끝내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허준이 마음속으로 몹시 의심스럽고 괴이하게 여기고 있는데 문득 상민으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제 아내가 방금 아이를 낳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인사불성이 되었소. 좋은 약을 지어서 이 위급함을 구해주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허준은, “나는 의원이 아닐세. 어찌 병의 증세를 밝혀 그에 따라 약을 쓰는 것을 알겠는가? 의원에게 가서 물어보고 약방문을 받아가지고 오면 마땅히 지어 주겠네.” 하고 말하자 약을 지으러 온 사람이 “본래 의원이 사는 집이나 동네를 모르오. 그냥 약 한 제를 지어서 사람 좀 살려주오.” 말하였다. 학구가 옆에 있다가 초설³⁾하기를, “곽향정기산 세 첩을 먹이면 즉시 나올 게야.” 그러자 허준이 말하기를, “그건 체증을 가라앉히고 울증을 풀어주는 데 쓰는 약인데 만약 산모의 병에 투약한다면 마치 얼음과 숯처럼 서로 맞지 않을 게요. 댁이 한갓 입에 붙어서 나온 말일 게요.” 학구가 앞서 한 말을 고집하니, 약을 지으러 온 사람이 일이 급하니 그냥 지어달라고 말하고는 약값을 지불하고 갔다. 저녁 무렵에 또 상민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와서 “저는 지난번에 여기서 약을 지어간 아무개의 이웃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다행히 이곳에서 좋은 약을 지어다가 먹고 깨어날 수 있었다고 하니, 이곳에는 틀림없이 훌륭한 의원이 계실 테지요. 제 아들이 세 살인데 마마를 앓아 위독하답니다. 좋은 약을 지어 살려주세요.” 그 말을 들던 학구는 곽향정기산 세첩을 복용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허준은 “상민들은 일찍이 약을 먹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기력이 굳세고 강한 사람은 더러 이 약으로 효험을 보겠지만, 포대기에 싸인 어린아이의 경우는 결코 이약을 복용해서는 안 되오. 하물며 그 증세와 형편이 천리의 차이뿐만이 아니잖소?” 그래도 그 상민이 굳이 청하므로, 허준은 또 곽향정기산 세첩을 지워주었다. 그 뒤에 그 상민이 와서 효험이 있었다고 했다. 이때부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다. 그때마다 학구는 곽향정기산으로 처방을 내렸는데, 모두 효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약효가 신속하게 나타났다. 그제야 허준은 학구에게 기이한 재주가 있음을 알고 그의 내력을 물으니 처음에는 감추다가 거듭 물으니 대답하였다. “내가 어려서 못된 병을 앓았지요. 그런데 우연히 산인⁴⁾을 만나 신기한 처방을 받아서 낫게 되었소. 그로

인해 의학의 비결을 엿보게 되었는데, 대략 그 뜻만 알았지 끝까지 배우지 않은 까닭에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알뿐이오.” 허준이 무릎을 맞대고 앉아 그 재주를 배우고자 하니, 학구가 말하기를 “난경에 이르기를, ‘의술이라는 것은 뜻을 헤아려 운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깊이 생각하는 것이 정밀하면 터득할 수 있을 것이오. 그 덕은 능히 어질어남의 잘못을 용서하며 널리 사랑을 베풀지요. 그 지혜는 능히 남들이 꼭해하고 있는 것을 널리 드러내어 펼치고, 능히 천지신명의 위대함을 알며, 능히 사람의 성품과 천명의 길하고 흉한 운수를 밝혀낼 수 있지요. 허와 실을 구분하여 처리하여 순리와 역리를 정하고, 질병의 경중을 따져 약제의 분량을 헤아리며, 미묘한 것을 꿰뚫어 깊은 경지에 도달하되 미세한 것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오. 이렇게 한다면 비로소 좋은 의원이라 할 수 있을 게요.” 하고는 드디어 여섯 가지 재주와 네 사람의 의학자가 남긴 옛 의학서적의 의술을 자세하게 구술하여 주었다. 허준은 귀를 기울이고 들으며 암기하고 깨우친 바가 많았다. 이때부터 옛날의 의학서적을 보는 습관을 들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더니, 그 미묘한 것을 모두 터득하여 마침내 의술로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학구가 일찍이 혼자 나무꺾꽂 위에 앉아 있는데 어떤 재상의 아들이 들어왔다. 허준이 마루에서 내려가 맞이하여 인사를 하고 말하였다. “공께서 어떻게 왕립하셨습니까?” “아버님의 병환이 여러 달째 차도가 없는데, 온갖 약을 다 써봐도 효험이 없네. 의원의 말이 ‘오래 묵은 약초는 효험을 보기가 어려우니 몸소 약 파는 가게에 가서 따로 새 약초를 구해다가 정해진 법대로 지어 올리면 효험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므로 이렇게 찾아왔네.” 하고는, “저 꺾꽂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고 묻자, 허준이 요즘에 기이한 일이 있었다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해 주었다. 그러자 재상의 아들은 웃기를 여미고 학구의 앞으로 다가가 부친의 병세를 자세히 말하고는 좋은 처방을 내려 달라고 청하는 것이었다. 학구는 표정도 바뀌지 않은 채 다만 이렇게 말하였다. “곽향정기산이 가장 좋소.” 재상의 아들은 속으로 비웃으면서도 약을 지어 돌아가서는 부친에게 그 학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 말을 듣고 노재상이 “이 약이 마땅한 약제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한번 복용해 봐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아들과 문하생들이 교대로 찾아와서는 거듭 이렇게 간하는 것이었다. “몹시 지쳐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인삼과 부자를 쓰는 것인데, 어찌 갑자기 기운을 호트러뜨리는 약제를 올리겠습니까? 결단코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노재상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조금 뒤에 그의 아들이 달려

3) 勳設 : 남의 학설을 훔쳐서 자신의 학설로 삼는 것.

4) 山人 : 산 속에 사는 중이나 道士

은 약을 올리자 노재상이 말하였다. “먹은 것이 아직 내려 가지 않았으니 우선 거기 놓아두거라.” 밤이 되자 노재상은 은밀히 하인 한 사람더러 몰래 곽향정기산 세 첩을 지어서 큰 노구술에 함께 섞어 넣어 다리게 해서 세 번에 나누어 복용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앉으니, 정신이 맑고 기운이 넘치는 것이 병의 증세가 갑자기 줄어들었다. 그의 아들이 문안을 드리자, 노재상은 곽향정기산을 다려 복용한 일을 말하고 학구를 모셔오라고 했다. 그의 아들이 즉시 가서 극도로 감사의 뜻을 말하고, 또 부친의 말을 전하면서 함께 집으로 가자고 청하였다. 그러자 학구는 소매를 뿌리치고 표연히 사라지고 말았다. 재상의 아들이 낙심하여 돌아가 그 간의 경과를 아뢰자, 노재상은 그가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지조가 굳은 선비라며 더욱 감탄하였다. 그럴 즈음에 임금의 건강이 나빠져 병이 들었다. 어의들이 교대로 진맥을 하였으나 병세를 알아내지 못하자 온 조정 대신들이 초조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노재상이 약원의 제조로 있으면서 입시하고 있다가 그 학구의 일을 임금에게 아뢰자, 임금이 말하였다. “그 약이 비록 반드시 효험이 있지는 않을 것이나 또한 해로울 것도 없지.” 하고는 즉시 곽향정기산을 달여 들이라고 명하였다. 이튿날 임금의 병이 다 나았다고 아뢰자, 임금은 더욱 감탄하고 기이하게 여기며 그 학구를 찾아 오라고 명하였으나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뒤로 허준의 의술은 더욱 정심하여지니 재상가에서 다투어 맞아가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그는 다리에 병이 있어 갈 수가 없다며 거절하였다. 임진년에 임금이 몽진을 떠날 때 허준은 어의로서 어기를 호종하였다. 모화현을 넘을 때 그의 걸음이 매우 빠르므로, 백사 이항복이 돌아보고 웃으며 신료들에게 말하였다. “허준의 다리 병에는 난리탕이 신기한 효험이 있구먼.” 허준은 어기를 호종한 공으로 양평군에 책록이 되었고, 그가 지은 『東醫寶鑑』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외사씨는 말한다. 허준의 의술은 오로지 학구의 깨우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학구는 증세에 따라 약을 쓰지 않았고 다만 한 가지 처방만을 써서 그 때마다 효험을 거두었으니 또한 기이한 일이다. 대개 의학서에 해마다 운이 순환한다는 학설이 있다. 한 해 동안 일어나는 온갖 병이 비록 달라도 그 근본은 그 해의 운에 따라 생겨난다는 것이다. 참으로 그 해의 운이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를 알고 그에 맞게 지어진 약을 투약하면 비록 서로 맞지 않은 증세라고 할지라도 효험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것들은 지방에 실려 있는 것으로 평범한 의원들은 볼 수 없는 것이다. 평범한 의원들은 그저 증상에 따라 약을 쓰면서 그 병의 근본원인은 제쳐두고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치료하는 까닭에 해로울 뿐

무익한 경우가 많다. 그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⁵⁾

〈사례 2〉 許浚은 宣朝 때의 御醫로 젊어서는 가난하여 銅峴에서 약방을 하였다. 어느 날 초라한 차림의 老學究가 사람을 만날 약속이 있다며 약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는데 여러 날이 되도록 찾아오는 이가 없었다. 한 庶人이 와서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기절했다고 하자 노인이 藿香正氣散을 지어주게 하였다. 그 날 저녁에 또 한 庶人이 와서 그 여자가 나왔으며 자기 아이의 천연두를 고쳐달라 하니 노인이 다시 곽향정기산을 지어주게 하였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곽향정기산을 주면 병이 다 나았다. 許가 학구에게 배움을 청하여 그 의술을 전수받았다. 어느 날 한 재상이 역시 學究가 지어주게 한 곽향정기산을 먹고 병이 나은 후 학구를 모셔오게 하였으나 떨치고 떠나버렸다. 얼마 후 임금이 병이 들자 그 재상이 학구의 일을 이야기하고 곽향정기산을 올리니 임금의 병이 나았다. 그 후 許의 의술이 점점 진보하였으니, 卿率 집안에서 다투어 맞아하려 하면 다리병을 핑계대어 거절하였다. 임진란 때 許가 御醫로 扈從하는데 그 걸음이 빠름을 보고 白沙 李公이 허준의 다리 병에는 난리탕이 제일이라 하여 모두 웃었다. 허가 임금을 호종한 공으로 陽平君에 봉하여졌다. 그 저서 『東醫寶鑑』이 세상에 전한다.⁶⁾

〈사례 3〉 허준이 젊었을 때에 동현에서 약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루는 한 선비가 약방에 와서 아무말 없이 구석에 앉아 있기에 물으니 누구를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이 선비는 밥때가 되면 나가서 사먹고 들어오는데, 여러 날이 지나도 만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한 사람이, 아내가 출산에 임박하여 졸도를 했으니 약을 지어 달라고 왔다. 허준이 말하기를, “진찰하여 처방이 있어야 한다.” 고 하면서 거절하니 그 사람은 급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을 지어 달라고 애원 하는 것이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선비가 문득 “곽향정기산 세 첩이면 된다.” 라고 말했다. 허준이 웃으면서, 그 약은 가슴이나 속이 답답한 것을 내려가게 하는 약인데, 어찌 임신부에게 되느냐고 했다. 그러나 약 지으러 온 사람이 그것이라도 지어 달라고 하여 할 수 없이 지어 주었다. 저녁때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옷의 임신부가 조금 전 여기에서 지어간 약을 먹고 병이 나았으니, 세 살 아들의 두창 약을 좀 지어 달라.” 고 졸랐다.

5) 김동욱, 『국역 청야담수 I』, 도서출판 보고사, 2004:293-300.

6) 徐大錫, 『朝鮮朝文獻說話輯要(II)』, 集文堂, 1992:612-613.

옆에 있던 선비가 역시 “곽향정기산 세첩”이라고 말했다. 허준의 생각에 어린아이에게는 전혀 맞지 않은 약이지만, 성화에 못 이겨 지어 주었다. 이후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와 약을 지어 달라고 하는데, 한결같이 ‘곽향정기산’을 지어 주니 병이 나았다. 그래서 허준이 그 선비가 異人임을 알고 공경의 예를 표한 다음에, 대화를 하면서 많은 의학 지식을 얻었다. 하루는 선비가 약방의 나무 상자 위에 앉아 있는데, 한 재상의 아들이 허준에게 와서 “부친의 병환이 낫지 않으니 새로운 약을 좀 연구해 봐 달라.” 하고 요청했다. 그때 상자 위에 앉은 선비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재상 아들이 그 선비에게 부친 병에 대한 약을 물었다. 선비는 또 태연하게 “곽향정기산이 제일 좋다.”라고 말했다. 재상의 아들은 곽향정기산을 지어 가서, 부친에게 이상한 선비의 이야기를 하고는, 부친에게 맞는 약이 아니라고 하여 달이지 않고 던져두고, 다른 인삼 든 약을 달여 올리는 것이었다. 재상이 아들 말을 듣고 무엇인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밤중에 아들 몰래 종을 시켜 그 약을 달여 오라 하여 세 번 나누어 마셨더니, 곧 아침에 병이 완쾌되었다. 곧 재상이 아들을 시켜서 그 선비를 모셔 오라고 했더니, 그 선비가 불쾌한 표정을 짓고 어디론가 떠나가 버렸다. 뒤에 임금이 병이 나서 재상이 이 선비 이야기를 하고 곽향정기산을 달여 드렸더니 임금의 병도 또 나았다. 그래서 전국에 수배하여 이 선비를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했고, 허준은 곧 선조의 御醫가 되었으며, 허준의 의술은 뛰어나서 뒤에 『東醫寶鑑』을 남겼다.⁷⁾

〈사례 1〉은 김동욱의 『국역 청야담수 1』에서, 〈사례 2〉는 徐大錫, 『朝鮮朝文獻說話輯要(II)』에서, 〈사례 3〉은 김현룡의 『한국문헌설화』에 실려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위 이야기 모두 허준이 곽향정기산을 이용하여 만성병을 다 고쳤다는 내용이다. 물론 의학적 효능에 대하여는 별도로 엄밀하게 분석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위 이야기는 당시 사회의 민중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역사적 실제 인물인 허준과 문헌에 실려있는 실제 처방인 곽향정기산을 설화적 내용으로 꾸며진 그 배경에는 『청야담수』와 『동야회집』에 ‘投神訣藥鋪對話’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설화는 과학적으로 규명하긴 힘들지만, 환자의 치료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난 듯하다. 플라시보 효과란 약물학적 작용 또는

다른 어떤 직접적인 신체작용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환자의 의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생기는 유익한 반응을 말한다. 병에 걸린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그 병을 극복하고 치료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말로서, 그 시대 민중들은 허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설화이다. 또한, 약효가 적중하면 만병통치약이라고 과장되게 말하는 그 시대 사람들을 통해 사람이나 사물을 의심하는 일이 없는 淳朴性을 엿볼 수 있다.

이 외에도 『朝鮮朝文獻說話輯要 I』과 『李朝漢文短篇集(中)』에 허준이라는 인물 대신에 약방주인으로 이름만 바뀌어서 곽향정기산이라는 처방이 만병통치약으로 쓰여지고, 異人의 등장과 대화의 이유가 임금의 병을 고치는 비슷한 내용의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 1〉 銅峴의 한 약국에 초라한 차림의 노인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손님을 기다리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며칠을 묵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다 죽게 되었으니 약을 급히 지어달라고 하자 그 노인이 藿香正氣散 세 첩이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약국 주인이 그 약은 속병에 쓰는 약이니 효험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찾아온 사람은 급한 김에 그 약을 지어갔다. 조금 있으니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 이웃사람이 효력을 보았다고 하면서 역질을 앓는 아들의 약을 지어달라고 하자, 그 노인은 또 藿香正氣散을 쓰라고 하니 그 사람도 효력을 보았다. 노인의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이 약을 지으러 왔는데, 노인은 한결같이 藿香正氣散으로 답하였고 그때마다 효력이 있었다. 어떤 재상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약을 지으러 왔는데, 노인이 또 곽향정기산으로 처방을 내리기에 재상이 시험 삼아 그 약을 먹어보니 병이 금방 나았다. 재상의 아들이 그 노인을 모시러 갔더니 그는 거절하고 종적을 감추어 버렸다. 얼마 후 임금이 병이 들었는데 재상이 시험적으로 곽향정기산을 드시게 했더니 완쾌되었다. 아마도 그 노인은 임금이 병이 들 줄 알고 그런 처방을 했을 것이다.⁸⁾

〈사례 2〉 銅峴의 한 약국에 어느 날 허름한 옷에 짚신을 신고 용모가 향원 같이 보이는 老學究가 불쑥 들어왔다. 한 구석에 앉아서 한 마디 말도 없이, 한식경이 지나도록 일어나지도 않았다. 약국 주인이 이상해서 어디서 오셨는지, 무

7)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1』, 건국대학교출판부, 1998:465-466

8) 徐大錫, 『朝鮮朝文獻說話輯要(I)』, 集文堂, 1991:427.

슨 일로 왔는지 묻자, 누구와 여기서 만나기로 약조가 되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였다. 밥때가 되어서 주인이 같이 밥을 들자고 청하자 사양하고 밖으로 나가 밥집에 가서 밥을 사 먹고 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기다린다는 사람은 중에 오지 않았다. 며칠 뒤 한 常民이 약국을 찾아와서 “내 집사람이 해산을 하다가 갑자기 기절을 하여 인사불성입니다. 아무거나 좋은 약을 좀 지어서 죽는 목숨 살려 줘쇼.” “자네들 무식한 사람들은 매양 약 파는 사람이 의술도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찾아오네만 나는 의원이 아니라네. 어떻게 증세에 맞춰 약을 지을 줄 알겠나? 의원에게 가서 方文을 내어 오면 약을 지어 줘세.” “우리아 본디 의원 문전도 모르구 사는데쇼. 제발 약을 좀 지어 줘 사람 살려줍쇼.” 이때 노학구가 불쑥 나서서 곽향정기산 세첩만 쓰면 즉효할 것이라 하였다. 약국 주인이 웃으며 “곽향정기산은 病鬱症에 쓰는 약인데 産病에 쓰다니 氷炭이요 당신이 그저 입에 붙은 소리로 하는 말이구려.” 학구는 그래도 곽향정기산을 고집하자 그 상민은 위급하니 그 약을 지어달라고 하고 약값을 주었다. 그날 석양에 또 한 상민이 찾아왔다. “나는 某甲와 이웃에 사는데쇼. 모갑이 처가 애를 낳다가 기절을 하였는데 이 약국에서 좋은 약을 지어다 쓰고 회생했다르요. 반드시 명의를 계실 줄 알구 찾아왔습쇼. 내 자식이 사망 세 살인데 마마로 위독합니다요. 내게도 좋은 약을 지어 줘 자식을 살려 줘쇼.” 그러자 학구는 또 곽향정기산 세첩을 쓰라고 했다. 약국 주인이 나서서 “상사람들이란 위낙 약을 써 보지 않아서 성인은 혹 곽향정기산으로 효험을 볼지도 모르지요. 허나 강보에 싸인 아기에게는 당치도 않아요. 하물며 痘症에는 천리나 먼 약을 가지구...” 그 상민이 그래도 약을 지어 달라고 떼를 써서 또 마지못해 곽향정기산 세첩을 지어 주었다. 얼마 후에 그 상민이 다시 들러 과연 즉효를 보았다고 했다. 그로부터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리개의 약국으로 연이어 밀려들었는데 학구는 누구에게나 어떤 증세에 대해서도 곽향정기산이었고, 모두 씻은 듯 신호를 보았던 것이다. 여러 달이 지나도록 학구는 약국을 떠나지 않았으며 기다린다는 사람은 영 나타나지 않았다. 하루는 어느 재상가의 자제가 구리개 약국에 들렀다. 약국 주인은 영접을 하고 물을 뿌린다 비질을 한다 온통 부산했으나 학구는 껌 위에 떡 앉아서 까딱도 않고 있었다. “親患이 침중하여 이미 수개월이 경과하였는데 백약이 무효하고 원기가 적탈하시었네. 작일 영남서 모셔온 儒醫가 補劑의 화제를 내놓고 陣根腐草로는 약력을 얻기가 어렵다고 몸소 약국에 나가 새 약제를 특별히 가려서 정히 법대로 지어야 효험을 볼 수 있다 하네. 그래서 내 직접

찾아온 것이네.” 약국 주인은 특품으로만 뽑아서 화제대로 약을 지었다. 재상가의 자제가 껌위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 묻자, 약국 주인은 그 사이 일어났던 기이한 일을 대강 이야기했다. 재상가의 자제는 의관을 정제하고 학구의 앞으로 나아가 친환의 증상을 꼭 설명하고 좋은 처방을 간청하였다. 학구는 듣고 있다가 곽향정기산이 가장 좋다고 했다. 재상가 자제는 속으로 웃으며 일어나서 약침을 들고 돌아갔다. 청지기에게 그 약을 달이라 하고 들어가서 부친을 뵈었다. 말끝에 학구의 일을 듣고 본대로 아뢰고 웃었다. 재상이 말하기를, “그 약이 반드시 닿지 않는 것도 아니니 시험 삼아 복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자제는 물론 문객이나 청지기들이 극구 만류하였다. “원기가 탈진하신 터에 消散劑를 쓰다니요, 안될 말씀입니다.” 재상은 더 이상 말을 못하였다. 이윽고 그 약을 달여 내오자, “먹은 것이 아직 내리지 않았으니 우선 머리맡에 두어라.” 하고 재상은 아무도 모르게 그 약을 쏟아 버렸다. 그리고 좌우에 친히 부리는 사람을 시켜서 가만히 곽향정기산 세 첩을 지어 오게 하였다. 세 첩을 큰 노구술에다 한데 끓여서 세 차례 나누어 마셨다. 재상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정신이 개운하고 기운이 돌아나 정말 병근이 말끔히 가셨다. 자제가 아침 문안을 드리러 들어오자 “병줄이 몸에서 떨어진 듯싶구나.” 자제는 영남 의원의 덕인 줄 알고 “某醫는 참으로 扁鵲華陀로군요.” “아니다. 구리개 약국의 학구가 어디 사람인지 모르지만 참으로 신의로구나.” 하고, 약사발을 비워 버리고서 곽향정기산을 달여 먹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자제는 약국의 학구를 직접 가서 모셔오라는 부친의 명을 받고 구리개 약국으로 가서 학구에게 꼭진히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자기 집에 왕림해 줄 것을 청했다. 학구는 옷자락을 떨치고 일어나서 “내 서울 성중에 발을 잘못 디더서 이런 귀찮은 일을 당하는구면, 내 어찌 幕客이 될까부냐.” 하고 표연히 나가 버렸다. 재상가의 자제는 무안하여 물러서고 말았다. 돌아와서 이러한 사연을 아뢰자 재상은 탈속한 고상한 선비라고 찬탄해 마지 않았다. 미구에 임금이 실섭하더니 환후가 침중해져서 고명한 의원도 병맥을 못 짚었다. 온 조정이 초조하고 경황이 없었다. 그 재상이 당시 藥院提調 있었다. 학구의 일을 신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터이라 上候를 살피러 들어간 길에 奏達하였다. “곽향정기산이 반드시 이로울 바는 아니나 썩야 보겠느냐.” 그 약을 달여 오게 하여 복용한 이튿날로 임금도 쾌차하였다. 임금은 탄복한 나머지 그 학구의 중적을 탐문하라고 명하였으나 끝내 찾아내지 못하였다 한다. 식자들의 말이, “그는 이인이다. 대개 醫書에 의하면 時運이 순환하는 고로 한 시기에 백명이 발생하여 증세가 상이

하더라도 그 근원은 年運에 의함이라 하였다. 참으로 연운을 잘 알아서 거기에 맞는 약을 쓰면 맞지 않는 증세에 대해서도 모두 효험을 보는 법이다. 근래 의업을 하는 자들은 이러한 이치는 통 모르고 단순히 증세만 좇아서 약을 쓰려고 하니 지업을 다스리느라 근본을 잃는 격이다. 이리하여 맹랑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 학구는 임금이 실섭하실 것을 예측하고, 또 곽향정기산이 아니면 치병할 수 없겠기에, 짐짓 일을 꾸뒀던 것이리라.”⁹⁾

〈사례 1〉은 서대석의 『朝鮮朝文獻說話輯要 I』에서, 〈사례 2〉는 李佑成·林熒澤의 『李朝漢文短篇集(中)』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위에 설화는 곽향정기산과 의원이라는 같은 구조의 일화로 허준이라는 인물 대신에 약방주인으로 이름만 바꾸어서 표현된 경우인데, 『청구야담』과 『파수편』, 『해동야서』에서는 ‘投良劑病有年運’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주 내용은 銅峴의 한 약국에 老學究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 불치의 환자가 찾아오면 무조건 곽향정기산 세 첩을 주어 치료하도록 하였고, 그때마다 환자들은 신기한 효험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런 허황된 이야기는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의 입장에서 볼 때 사경을 헤매고 있는 환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어느 神醫가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절박함을, 그리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하에서 곽향정기산이라고 생각되는 영약을 구하고 싶은 기대심리를 표출한 것이다.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 민간에서 명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하다.

IV. 결 론

이상으로 곽향정기산에 얽힌 허준설화 및 관련설화를 알아보았다. 본고의 내용은 한의학적 영역에서 곽향정기산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앞에서 말하였듯이 설화적 의미에서 곽향정기산에 대한 자료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따라서 본 글이 한의학적 설화의 전체가 아니지만 한의민속학적 자료로서 또는 민중속의 한의학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허준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그는 명의로서 이름을 남겼으며, 신기한 도술에 능하여 모든 병을 치료하였다는 설화를 남기고 있다. 그것을 통해 그는 민중의 심리 속에서 치료받은 싶은 의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곽향정기산을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킨 내용의 설화를 통하여, 민중들이 얼마나 그에게 치료받고자 했는지 알 수 있다. 그가 대중들에게 신앙의 대상처럼 되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임금을 치료하였다던지, 중국황제의 불치병을 치료하였다던지 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그 하나의 사례는 임금이 병이 나와 재상이 곽향정기산으로 온갖 병을 고쳤다가 자신의 부친병 또한 고쳤다는 선비 이야기를 하고, 곽향정기산을 달여 드렸더니 임금이 병이 나았고, 임금이 그 선비를 수배하여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허준이 御醫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이는 민중들이 임금을 치료하였던 의원에게 치료받고 싶은 강력한 욕구임을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출산에 임박하여 졸도한 부인이 곽향정기산을 먹고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나, 어린아들의 두창약을 지어 달라고 하자 곽향정기산을 먹자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 또한 억지스러운데가 있지만 나올 수 없는 병에서 그 고통을 잊고자 하는 민중들의 삶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곽향정기산에 관하여 허준이라는 조선중기의 名醫와 연관시켜 설화가 전해지는 것은 민중들의 심리 속에서 허준이 명의라는 심리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V. 참고문헌

1. 허준, 『對譯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1999.
2. 김동욱, 『국역 청야담수 I』, 도서출판 보고사, 2004.
3. 徐大錫, 『朝鮮朝文獻說話輯要(II)』, 集文堂, 1992.
4.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1』, 건국대학교출판부, 1998.
5. 徐大錫, 『朝鮮朝文獻說話輯要(I)』, 集文堂, 1991.
6. 金泰漢, 『民俗語文論叢』, 계명대학교출판부, 1983.
7. 李佑成·林熒澤, 『李朝漢文短篇集(中)』, 一潮閣, 1982.

9) 李佑成·林熒澤, 『李朝漢文短篇集(中)』, 一潮閣, 1982:189-193